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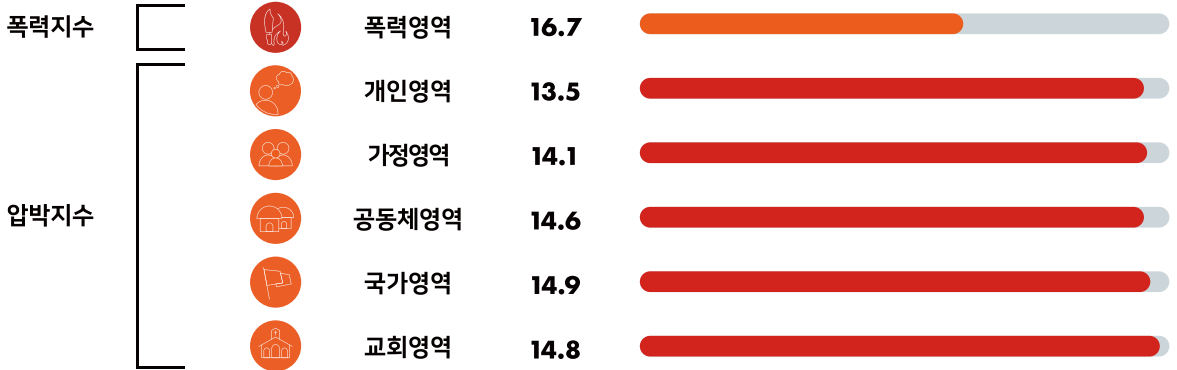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수

7 위

나이지리아 (NIGER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기독교인들은 민족·종교적 적대, 이슬람주의적 억압,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가 심각하게 결합된 상황에서 고통을 겪는다. 주로 북부의 샤리아 통치 주에서 기독교인들은 필수적인 자유를 박탈당한다. 북부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여러 집단에 의한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폭력에 시달린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의 대부분은 보코 하람과 ISWAP을 합친 것보다, 무슬림 풀라니 무장세력과 풀라니계 “노상강도집단”들이 더 많이 자행하고 있다(ORFA, 2024년 8월). 최근 몇 년간 폭력은 증가했고 남부 주들로까지 확산되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남부 주들의 숲에 숨어 게릴라식 공격을 수행하는 무슬림 풀라니 민병대에 의해 이뤄진다. 남동부에서 기독교인들의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IPOB(비아프라 원주민)이다. IPOB는 또한 특히 자사의 이념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해 왔다. 많은 남부 주에서는 때로 주 정부의 장려를 받으며 아프리카 전통 종교가 다시 부흥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는 씨족적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과 배치된다고 여기는 전통 종교적 관념에 복종하도록 강요받는다.

나이지리아 (NIGERIA)

국가 정보

지도자 : 볼라 아흐메드 아데쿤레 티누부 대통령

인구 : 234,574,000명

기독교인 수 : 107,275,000명¹

주요종교 : 이슬람(46.9%)과 기독교(45.7%)

정부형태 : 연방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07,275,000	45.7
무슬림	110,058,000	46.9
민속종교	16,432,000	7.0
기타	809,000	0.3
	합계	100%

출처²

나이지리아의 민주화는 1999년에야 이루어졌는데, 이는 16년간의 군사 통치가 끝난 때였다. 헌법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세속 국가이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북부 12개 주에서는 샤리아 법이 제도화되었다.

전진진보당(APC) 소속의 부하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이였다. 2023년 5월 집권한 티누부 대통령은 핵심 요직 보유자들 사이에서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균형을 더 잘 맞추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지역인 남서부 출신 무슬림을 더 선호하는 한편, 북부 출신 무슬림의 영향력을 줄였다. 그가 내세운 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내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민족성과 종교는 나이지리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인들은 민족적·종교적 정서를 자극해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결집하려 한다. 나이지리아 정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국가의 막대한 석유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의 배분이다. 부패는 주(州) 차원과 연방 차원 모두에서 만연해 있다.

여러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가 만들어 낸 '폭력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오랜 기간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왔다. 잘 알려진 단체로는 보코 하람, ISWAP, 안사루가 있으며, 최근에는 라쿠라와와 마흐무다도 있다. 이들의 이슬람 순수주의적 의제에는 1978년 플래토주 조스에서 창설된 이잘라 운동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이 운동은 종교적 '혁신'을 제거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적 관행과 생활양식인 순나를 장려하려는 개혁주의 집단으로 시작했다.

이 갈등은 한때 주로 종교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무슬림 풀라니 무장세력이 기독교인(그리고 점차 하우사계 무슬림)에 맞서 벌이는 민족·종교적 전쟁 양상으로 이동했다. 무장세력은 북부 여러 주에서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마을들을 공격해 사람들을 살해하고 성폭행하며 납치했고, 교회와 다른 건물들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수확물을 파괴하거나 농지를 점거했고, 심지어 공동체

¹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ed.),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오픈도어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수정.

자체를 점거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접 국가들에서 풀라니 무장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력 위협은 더욱 커졌다. 폭력은 남부 주들로도 확산되었다.

'납치 산업'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납치되고 되찾기 위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면서 '세대 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제나 목회자가 납치될 때 기독교 본당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공동체는 몸값을 마련하느라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정부가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서 교육에도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나 수백만 명의 아동이 문맹, 조혼,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모집을 더 쉽게 만들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킨다.

2024년 말 기준, 나이지리아에는 폭력으로 인해 국내 실항민(IDP)이 340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다수가 기독교인이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북동부의 폭력은 주로 보코 하람과 ISWAP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이들은 기독교인과 자신들의 극단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를 공언해 온 종교·이념 집단이다.

북서부에서는 이른바 무장 노상강도들이 다수 활동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풀라니계였다. 무장 노상강도들의 활동은 점차 민족·종교적 성격을 띠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신앙과 무관하게 하우사인을 살해하는 한편, 민족과 무관하게 기독교인들을 특히 표적으로 삼았다. 북서부에서 벌어진 노상강도 폭력이 모두 지하드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뢰할 만한 증거는 일부 노상강도 집단이 지하드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있으며, 몸값을 노린 납치를 통해 지하드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이지리아 식량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북부 지역은, 기존 및 새로 등장한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들의 위협이 전례 없이 복합적으로 수렴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들 단체는 주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한다(ORFA, 2025년 5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소코토주와 케비주에서 라쿠라와가 등장함
- 마흐무다 집단이 크와라주와 나이저주 일부 지역에서 거점을 구축함
- 안사루 테러 조직 세포가 코기주에서 작전을 구축함
- 플라토주와 베누에주에서 풀라니 민족 민병대(FEM) 공격이 재확산됨

풀라니 무장세력은 계속해서 가장 큰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사망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풀라니계 “노상강도”까지 집계에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커진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민족·종교적 적대, 이슬람주의적 억압, 독재정권의 편집증적 피해의식,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나이지리아에는 기독교인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기독교인에 대한 침해가(그리고 점차 풀라니계가 아닌 무슬림에 대한 침해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면책의 문화가 나타난다.

북부 12개 주는 샤리아 법으로 통치된다. 서로 다른 종교 집단 및 민족·종교 집단에 의한 폭력적 공격이 만연하다. 전 대통령 부하리는 치안·안보 체계의 핵심 직위에 주로 북부 출신 무슬림을 임명했다. 티누부 대통령 체제 아래에서도 핵심 안보 직위는 여전히 북부 풀라니계 무슬림이 맡고 있다. 한편 미들 벨트 지역의 무슬림 풀라니 무장세력은 보안 당국으로부터 거의 대치나 제지를 받지 않는다.

종교 지도자들은 불관용적 이념과 폭력 선동을 통해 기독교인에 대한 침해를 부추겨 왔다. 보코 하람과 ISWAP 같은 이슬람주의 급진 단체들은 민간인을, 특히 자신들과 노선을 같이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다. 이는 무슬림 풀라니 무장세력과 다양한 무장 “노상강도” 집단(그중 상당수가 풀라니계)이 저지르는 폭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정도는 오히려

려 더 심각하다. 이러한 일은 북부 주들에서 발생하며, 점차 남부 주들에서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밖의 가해자로는 기독교인을 상대로 거리 폭력을 저지르는 시민 폭도들, 가족 구성원들(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맥락에서), 정치 정당, 그리고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포함된다.

씨족적 억압

많은 남부 주에서는 씨족적 억압이 기독교인 박해에 기여한다. 기독교인들은 신앙 때문에 전통 의례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처벌에는 특정 부담금 납부, 구타, 또는 공개적 망신(예: 옷을 벗겨 알몸으로 만드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나이지리아에서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등 개신교 교단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서로 다른 종교 및 민족·종교 테러 단체들의 폭력적 공격과, 특히 북부 주들에서 지방 당국에 의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기독교 개종자

이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다.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은 대체로 북부 나이지리아 출신이며,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종 집과 거주 주를 떠나 도피해야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들의 경험은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와 유사하다. 특히 북부 주들에서 복음주의 및 오순절 공동체는 지방 당국에 의한 차별과 더불어, 서로 다른 종교 및 민족·종교 테러 단체들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겨냥한 폭력적 공격에 직면해 있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무슬림 풀라니 무장세력, 보코 하람과 ISWAP 전투원, 그리고 이른바 노상강도들로부터 극도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노예 또는 강제결혼 상태로 내몰리거나, 몸값을 노린 납치의 대상이 되거나, 살해된다. 신성모독 혐의 제기는 위협을 더욱 가중시킨다. 만연한 아동결혼은 소녀들의 취약성을 한층 심화시킨다. 여성들은 종종 남편과 아들이 폭행당하거나 살해되는 일을 목격한다. 국내 실향민(IDP) 캠프에서는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이 성폭력이나 강제결혼에 직면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자녀 양육권 박탈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적 복장 규정 강요
- 강제이혼
- 강제결혼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은 무슬림 풀라니 민병대와 기타 테러 단체들에 의해 표적 살해를 당한다. 생존자들은 강제 징집이나 몸값을 노린 납치 위협에 놓인다. 남성들은 교육, 고용, 사업 전반에서 체계적인 차별을 겪는다. 국내 실향민(IDP) 캠프에서 남성들은 아내와 딸들에 대한 폭력을 강제로 목격해야 하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일부는 경작을 재개하고 가족의 생존을 돕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 하지만, 귀환자들은 매복과 사망 위험에 노출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박해형태:

- 납치
- 상속권·재산권 박탈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강제로 집에서 쫓겨남(추방)
- 정부에 의한 투옥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7	89
2025	7	88
2024	6	88
2023	6	88
2022	7	87



전체 압박 점수는 WWL 2025에 비해 0.6점 상승했다. 폭력 점수는 가능한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샤리아 법을 시행한 주들은 계속해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았다. 기독교인들과 그 공동체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계속 공격을 받았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대통령은 국내 폭력의 책임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The Insight, 2023년 6월 13일). WWL 2025 보고 기간에는 이슬람주의 테러 단체의 공격으로 사망한 기독교인 수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WWL 2026 보고 기간에는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5년 3월 11일: 카두나주 카주루 LGA의 마로 워드에 속한 치비아 공동체에서 기독교인 22명이 납치되었다. 그중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이들은 풀라니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되었는데, 무장한 풀라니 민족 민병대 구성원들이 해당 공동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 합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 2025년 4월 14일: 플래토주 바사 LGA의 기독교 공동체 지케가 한밤중에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무장세력은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다. 이 공격은 공동체에서 3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군 작전기지가 있었음에도 발생했다. 기독교인 51명이 살해되었으며,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 2025년 6월 13~14일: 베누에주 구마 LGA에 있는 기독교 농업 공동체 열와타가 풀라니 무장세력의 4시간 공격을 받았고, 군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258명이 마체테로 난도질당하거나 총격을 당하거나 불에 타 사망했으며,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살해된 기독교인 수	납치된 기독교인 수	강간 및/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기독교인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
2026	3,490	2,293	1,000*	10,000*
2025	3,100	2,830	1,000*	10,0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을 참조하라.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인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살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종 도피해야 한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라도 위험하다. 개종자가 아닌 기독교인의 경우에도 이름이 신앙을 식별하게 만들 수 있다. 개인의 이름은 이슬람주의 무장세력의 습격 중생사와 직결될 수 있다. 여러 주의 농촌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거주하거나, 국내 실향민(IDP)으로 살아가는 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극도의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 영역

기독교인들은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에게 새 신앙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데, 이는 자녀 양육권을 잃거나 집을 떠나 도피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기독교 여성이 과부가 되면, 무슬림 친족이 때때로 아이들을 데려가 무슬림으로 양육하기도 한다. 국내 실향민(IDP) 상황에서는 기독교 부모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렵다.

지역사회 영역

대체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영어 이름이나 성경적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학교, 병원, 직장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무슬림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로 여겨져 괴롭힘을 당한다. 통치 에미르(전통적 통치자)들이 기독교 소녀들을 강제결혼 목적으로 납치하는 데 때때로 공모하기도 한다.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기독교 공동체에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만큼 충분히 도달하지 않는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물 공급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도시에서도 기독교인 거주 구역이 위생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실향민(IDP)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은 구호물자 배분에서 종종 제외된다. 연구는 강제 이주된 기독교인들이 지닌 구체적 취약성을 보여 준다(No Road Home, 2024년 9월). 이들은 폭력의 표적이 되었고, 열악한 생활 여건에 직면하며, 이주 과정 전반에서 신앙에 기반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국가 영역

신성모독 또는 다수 종교에 대한 모욕이라는 혐의가 쉽게 제기되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은 무슬림과의 대화에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말은 쉽게 악용될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면책의 분위기가 존재하여, 기독교인과 그 재산을 공격한 이들이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북부 12개 주에서 채택된 샤리아 법이 이를 상회한다. 언론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종종 “공동체 간 충돌”로 보도한다. 무슬림 소유의 언론 매체는 무슬림에 의한 기독교인 공격을 과소 보도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교회 영역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납치되거나 처형된다. 많은 다른 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교회 활동은 감시받고, 방해받거나, 저지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토지 제공도 거부당한다. 무슬림 개종자들을 공개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폭력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많은 개종자들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혼란과 면책의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과 다른 나이지리아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나이지리아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나이지리아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국가가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ICCPR 제2조)
- 기독교인들이 무차별 공격 속에서 살해된다 (ICCPR 제6조)
- 기독교 여성들이 강간·집단강간 및 성적 학대를 당한다 (ICCPR 제7조)
- 북부 주에서 기독교 아동들이 이슬람 종교 규범을 따르도록 강요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주로 북부 주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18조 및 제26조)

나이지리아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아프리카 전통 종교 신자들도 공격과 납치를 당해 왔다. 최근에는 기독교인을 살해하거나 납치했던 동일한 단체들에 의해 무슬림들도 살해 및/또는 납치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들 역시 집을 떠나 피난해야 했다. 이러한 폭력의 대부분은 무슬림 풀라니 무장세력과 연계된 노상강도집단이 하우사 무슬림을 대상으로 가한 것이었다. 시아파 성향의 나이지리아 이슬람운동(IMN)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나이지리아 당국에 의해 금지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활동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된다.



오픈도어의 나이지리아 사역

오픈도어는 1990년대 초부터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해 왔다. 우리의 비전은 선교 사명 안에서 통합적으로 사역하며, 새롭게 나타나는 박해 동향에 대응하고, 정치적·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가시성을 갖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 성경적 삶 형성/상황에 맞춘 제자훈련
- 지속가능한 생계 지원/경제적 회복탄력성 강화
- 박해 대응 경로 구축
- 새 신자 제자훈련 및 지원
-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표명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